

● 『발명하는 사람들』에 말한다

발명! 마른 수건도 다시 짜라



김 병 오

한산중학교 교사
(ajukbo@hanmail.net)

지난해 말 우리나라 H 자동차 기업의 최고경영자 중 한 사람인 K모씨가 임직원들을 향해 '마른 수건도 다시 짜라'는 내용으로 임직원의 정신 재무장을 주문하고 나섰다. 물기 없는 수건에서 다시 물을 짜낸다는 말이나 얼마나 힘을 들이고 노력해야 하는가를 잘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다.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듯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정신을 재무장하고, 더 나아가 기업경영의 최악

의 위기 국면인 현실을 타개해나가자는 주문이라는 것을 우리 발명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일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지금 세계 일류 메이커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생존경쟁에서 밀려 도태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특단의 원가절감 대책을 강구해 불요불급한 비용 지출을 줄여 달라는 내용이다.

또 다른 예로 우리나라의 LG 펠립스의 LCD 제품을 생산할 때, 'L2C(Leadership in Cost Competitiveness) 3020'을 채택하여 매년 원가 30% 절감, 영업이익률 30% 이상 달성을 통해 경쟁사와의 이익률 격차를 20% 이상 벌려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선두의 위치를 다지겠다는 원가절감 운동이나, 일본이 1980년대 미국 시장을 석권하고 고도성장 기반을 다진 것은 모두 이러한 극한도전(極限挑戰) 전략을 실시하여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 경영방식도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조개 속의 진주를 찾아서...’라는 뜻

‘마른 수건도 다시 짜라’는 발명품 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숨어있다는 또 다른 속뜻도 담겨있다. 발명의 기법 중에서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이용한 남의 아이디어 빌리기’에 해당한다. 물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아이디어 빌리기는 표

절, 상표권 침해, 특허권 침해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최근 닛산 자동차 최고 경영자는 종업원들에게 경쟁사의 자동차 소유를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운전 경험을 하면서 얻은 그 경쟁사의 좋은 아이디어들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장했다고 한다. 이는 성공적인 기업경영자들이 아이디어 빌리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런 행위, 즉 경쟁자가 이루어놓은 성과를 자신에게 적용하여 성공을 꾀하는 행위나 그 과정을 우리는 ‘벤치마킹’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려 아이디어를 얻는 일에는 다른 사람의 발명품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상대가 어린이든 어른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영국의 의학박사 제너는 목장에서 우유를 짜는 아낙네들의 ‘소의 천연두에 한번 걸렸던 사람은 사람 천연두에 안 걸린다’라는 말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힌트를 얻어 지구상에 무시무시한 병으로 알려진 마마(천연두) 예방법인 종두법을 발명했다. 또한 일본의 마쓰시다는 갑자기 쏟아지던 소나기를 피해 어느 집 추녀 밑에 잠깐 머무는 사이 그 집의 방 안에서 전등과 전기다리미 사용을 위해 다루는 부부싸움 소리가 들었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 쌍소켓을 발명하여 대기업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가 들썩 있으나 생각 없이 듣는 것은 소용이 없다. 발명하는 사람들은 항상 남의 이야기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듣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가 된다.

발명! 불로소득은 없다

지난 늦가을 어느 시골을 방문했을 때 들은 이야기이다.

하늘 높고 햇살 따가운 가을날 아버지와 함께 벼단을 옮기던 아들은 ‘아빠, 저 감 좀 보세요. 너무 빨개요. 감이 곧 떨어질 것 같아요’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그래, 홍시가 정말 탐스럽게 익었구나’라고 무심코 대답하였다. 그러나 일을 끝내고 아들에게 홍시를 따주려던 아버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2시간 동안 벌써 10여 마리의 까치가 날아와 먼저 쪼아 먹고 있는 것이었다. 옛날에는 감나무 밑에 누워있으면 홍시가 입안으로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제 감나무 밑에 누워있어도 홍시는 내 것이 아닌 세상인 것이다.

물론 일명 ‘찍찍이’로 불리는 ‘매직테이프’처럼 별다른 노력 없이 우연한 기회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발명품으로 연결시킨 사례도 있다. 스위스 한 시골에 살던 조지 드 메스트랄은 산책 후 집에 돌아와 옷에 붙은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있는 식물을 떼어 내면서 그 모양을 자세하게 관찰한 덕분에 매직테이프를 발명하게 되었다. 국화과 한해살이풀인 벨크로라는 식물에서 응용한 매직테이프는 두 면을 맞대고 가볍게 누르기만 해도 쉽게 밀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단추나 벨트 대신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그 사용범위가 매우 넓어져 지갑이나 주머니, 방석 커버, 어린이 신발 등에서부터 우주선의 마이크에 이르기까지 물건을 고정시키는 부분이면 어디든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 이야기만 본다면 조지 드 메스트랄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큰 불로소득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는 적극적인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 스스로에게는 물론 온 인류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세계에서는 노력 없이 얻어지는 공짜, 즉 불로소득은 없다. 혹시 있다하더라도 그 공짜를 위해 시간을 다투거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처럼 노력이나 수고가 없이 어떤 것을 가지려는 것은 도둑질이나 별로 다들 바가 없지 않는가? 어떤 것을 얻으려면 그것에 마땅한 노력이나 수고를 해야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발명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관찰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성공하는 발명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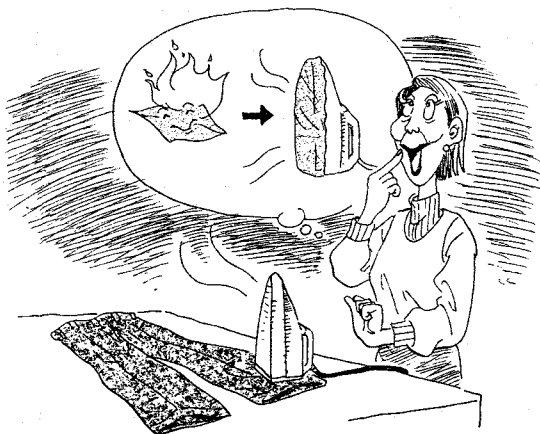
발명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발명한 발명품을 보면서 ‘마른 수건도 다시 짜야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책 속의 이야기

영동한 발상 하나로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

용도 발견이 발명으로! ‘제이미의 다리미 덮개’



석유 탐사에서 석유가 묻혀 있는 땅속의 맥을 찾는다는 것은 힘들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웬만한 유전은 거의 다 알려졌고, 하나의 유전이 발견된 경우 그 주변에는 또 다른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힘들게 찾아낸 유전 옆에는 또 다른 유전이 있듯이 하나의 발명품이 나오면 그에 따라 새로운 발명품이 뒤따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미국의 제이미 여사가 디자인한 다리미 덮개가 바로 그런 예이다. 이 간단하고도 기발한 디자인으로 제이미 여사는 단번에 디자이너 겸 발명가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1960대 초, 세계 최고의 화학섬유 회사인 미국의 듀폰 사는 뛰어난 발명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 가운데는 섭씨 400도의 높은 열에서 변하지 않는 불연성 섬유 발명도 있다. 이 섬유는 성냥불을 대도 끄떡없고, 다리미를 켜 채 그냥 올려 놓아도 아무 탈이 없다. 이런 놀라운 발명에 대하여 세계의 매스컴은 앞을 다투어 ‘신비의 불연성 섬유’라고 소개하기에 바빴다. 이 놀라운 발명품은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다.

그러나 제이미 여사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남다르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신문에 난 대로 이 섬유가 정말 불과 열에 끄떡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봐야겠어.’

제이미 여사의 머릿속은 운동 듀폰의 불연성 섬유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바쁜 일과 가운데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을 되새기며 하루를 보내던 제이미 여사는 빨랫줄에서 걸어온 남편의 바지를 손질하고 있었다. 바지를 펼쳐놓고 그 위에 흰 천을 덮고, 다시 그 위에 물을 뿌려 다리미를 하던 중 갑자기 일손을 놓고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번거롭게 다리미를 해야 하나?’

바지 하나 다리고 나면 어떻게 타 버리는 흰 천의 낭비도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천을 덮지 않고 다리미를 할 수도 없는 것이 천을 덮지 않으면 옷이 반질반질해져서 흥해 보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제이미 여사뿐만 아니라 주부들이면 누구나 겪는 불편함이었다.

땀을 흘리며 이리저리 옷을 돌려가며 다리미를 하던 제이미 여사에게 순간 번쩍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래, 내가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바로 그거야!’